

## 임기록 마치며

부회장 廉基珍

學會發展에 작은 微力이나마 寄與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했던 것이 었 그제 같은데 - 벌써 2년이란 歲月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못다 한 일에 대한 後悔와 아쉬움에 젖게 되는군요.

지난 2년동안 여러 임원진,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모두가 學會發展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急速히 發展해 가는 科學技術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當然한 일이기도 하겠읍니다만 學會일에 割愛되는 時間的 制限, 學會運營에 必要한 資金助達 등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 몸부림 쳐왔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現實이었던 것 같습니다.

尖端으로 치솟는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해서 끊임없이 持續되어야 할 學會活動이 좀더 알차게 進行되어야 하겠다는 바램은 한국미생물학회 全會員 뿐만 아니라 關心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어집니다.

이러한 바램을 위하여 한가지 提言하고 싶은 事項은 關聯 學會의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학회운영에 필요한 資金의 장기적 확보입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길만이 해결의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미력했던 지난 活動에 송구스러울 뿐 입니다. 한국미생물학회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 총무간사 양 철 학

지난 2년동안 미생물학회의 몇가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회장 및 여러 간사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괄목할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지부 결성이나 실험책의 발간 등 새로운 사업도 학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나 홍순우 교수님을 잃은 뼈아픈 추억, 잊을 수 없는 것이 많았다고 본다. 학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가장 학회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은 회원 여러분들이었으며 학회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회비를 꼭꼭 내주시는 성의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미생물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회원께서 꾸준히 협조해 주시길 빌면서 한국의 미생물학계가 세계적인 수준이 될때까지 여럿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다.

## 편집간사 김 상 종

학회지 한 호의 편집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호에 실릴 논문들이 수북이 쌓이는 모습에서 미생물학회의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노력과 세심한 정성들이 담긴 귀중한 논문들이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되길 바라며 그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재무간사 申 榮 午

평소 만형님 같이 온후하고 믿음직스러우신 노현모 회장님으로부터 적합하지 못한 재무간사의 소명을 받고 엉겁결에 거부하지 못한것이 한국미생물학회의 막강한 임원진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무거운 중압감을 갖고 시작하게 사실이나 大學, 연구소 등 저명인사로 구성된 임원진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린 것도 보람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상대로 재무간사로서의 역량은 부족하여 회장님과 학회에 누만 끼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있다.

아울러 광주에서의 지부모임, 제주에서의 합동학술대회 등은 노회장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한국미생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Newsletter인 미생물과 산업의 편집이 주 임무인 사업간사의 임기를 마치면서 지난 2년을 뜻깊게 보냈다는 마음과 한편으로 섭섭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장 이하 여러 임원들과 같이 학회 일을 걱정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섭섭한 마음은 주어진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하지 못한 때문이다. 학회소식란과 회원동정란을 통해 학회의 살아있는 소식통으로, 최신정보를 전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Newsletter를 2년간이나 죽어가는 잡지로 만든 결과를 보고 본인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따름이다.

매년 1호에 새로운 기획으로 자재공급사 목록을 실어 미생물학 관련 연구실의 구매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관련 업체의 홍보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참여업체의 수가 적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특집란을 새로이 마련하여 미생물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시도하였다. 특집을 위해 질높은 원고를 빛낼 수 있게 기획을 하지 못한 것이 필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이 기회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학, 연구소 기업간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표지를 국내 미생물학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소 소개로 새로이 마련하였다. 표지를 위해 귀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임 사업간사께서 “미생물과 산업”을 속간하여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계기로 현 임원 임기중에 조금이라도 이에 보탬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차기 사업간사께서 내용이 더욱 충실한 Newsletter로 발전시켜 줄 것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6회의 편집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기획이 불가능 하였을 것이며, 특집을 마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김효규 편집위원장 이하 편집위원 여러분, 특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을 직접 도와주신 김영배, 김학주, 이동희, 민태익 위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을 직접 도와주신 한국과학기술원 유전공학센터 응용미생물 연구실의 전·현직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